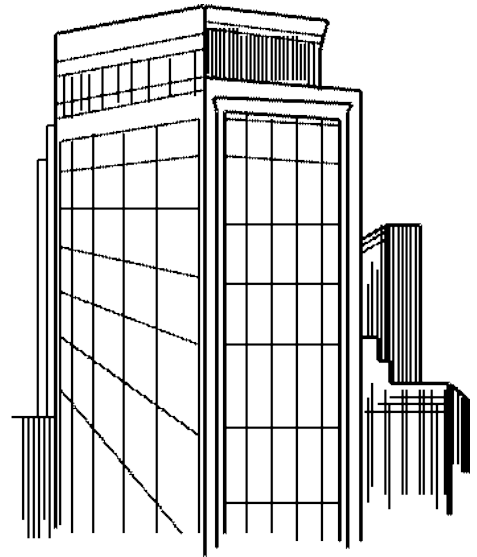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2. 3. 1. ~ 2022. 3. 31.



정책이슈

- ▷ 윤석열 당선인, 원전 확대 등 에너지정책 틀 확 바꾼다 P. 1
- ▷ OECD 1월 물가상승률 7.2%, 30년 만에 최고 P. 2
- ▷ 올해 공공기관 67조원 투자로 역대 최대 P. 3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 융자금 이용기간 3년으로 확대 P. 4
- ▷ 건설공제조합, 9년 연속 조합원에 현금배당, 순익 중 57%, 934억원 P. 4
- ▷ "건전한 업계 풍토 조성", 전기공사협회 올해 첫 윤리위 P. 5
- ▷ "전기요금 못 올리면 16조 추가 손실", 한전 '초비상' P. 6

금융

- ▷ 월간 경제지표 P. 7
- ▷ 3월 연준 FOMC : 정상화 시작 P. 8
- ▷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지명자 지명 P. 9

경제·정책 이슈

▣ 윤석열 당선인, 원전 확대 등 에너지정책 틀 확 바꾼다

1. 윤석열 당선인, 주요공약으로 원전확대 언급

- 에너지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원전산업이 대폭 강화되는 등 에너지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
- 윤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원전 산업 강화를 언급. 내용을 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발전 비중 30%대 유지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 ▲한미 원전 협력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 및 원전 미래기술과 해외사업 동반 추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 수출 ▲원전 관련 일자리 10만개 창출 등을 주장

2. 신재생 에너지 확대 모색한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 행보

- 이는 현 문재인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과 정반대 내용.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 신규 원전 중단 등을 추진. 그리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대폭 확대.
- 윤 당선인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재설정할 가능성이 높음. 현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정한 바 있음.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NDC를 수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으며 공약에서도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NDC를 수립하겠다’고 언급.

3. 에너지정책 수정 불가피

-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새 정부 공약인 30%대의 원전 비중과 2030 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동원전의 수명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 고리 2호기가 수명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 윤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한미 동맹 재건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전기신문, 3. 10.(목))

■ OECD 1월 물가상승률 7.2%, 30년만에 최고

1. OECD 회원국 물가상승률, 30여년 만에 최고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음.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치여서 최근의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반영되면 '물가 쇼크'가 우려됨.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8개국 중 29위였지만 주거비용 등을 반영하면 실제 물가상승률은 더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7일 OECD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7.2% 오른 것으로 나타남. 이는 1991년 2월 이후 30년 11개월 만에 최고치.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6.6%)보다도 0.6%포인트 상승. 대상 국가를 주요 20개국(G20)으로 좁혀 산출해도 1월 물가상승률은 6.5%였음.

2. 한국 물가상승률, 38개 회원국 중 29위

- 한국의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9위. OECD 전체 상승률(7.2%)의 절반 수준. 세계적인 고물가 충격을 한국이 덜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다만 한국의 소비자물가 통계에는 미국 등이 반영한 자가주거비가 집계되지 않아 한국 물가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됨. 자가주거비는 본인 집에 살면서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 한국 소비자물가 통계에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배달비도 일부만 반영돼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도 존재. (동아일보, 3. 8.(화))

▣ 올해 공공기관 67조원 투자로 역대 최대

1. 공공기관, 역대 최대규모 금액 투자예정

- 올해 공공기관이 67조원을 투자.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상반기에 53%인 35조 5,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

2. 주요 분야별 투자금액

- 우선 양질의 주택공급과 교통 인프라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 37조 9,000억원이 투입됨.
-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재 확보 등 에너지 분야에는 16조 1,000억원을 투입되며,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5조 7,000억원이 들어감. 사물인터넷(IoT)기반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에도 7,000억원이 투자될 예정.

2022년 공공기관 투자규모 : 67조원			
주요 투자분야 및 금액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37조 9,000억원	16조 1,000억원	5조 7,000억원	7,000억원

-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조 7,000억원이 늘어난 64조 7,000억원을 집행. 지난해 공공기관의 투자목표는 64조 8,000억원으로 집행률은 99.8%였음.
(e대한경제, 3. 2.(수))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 용자금 이용기간 3년으로 확대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신용 용자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신규 용자 신청 또는 연장(대체) 신청 시 최대 3년동안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년 용자 연장 신청을 해야 했던 조합원사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용자금의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
- 이용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체납 등 특별한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장 신청을 통해 용자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음. 조합은 상환기간을 3년으로 확대 하되 이자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조합원 부담은 가중하지 않으면서 이용편의를 강화. (대한전문건설신문, 3. 25.(금))

■ 건설공제조합, 9년 연속 조합원에 현금배당, 순익 중 57%, 934억원

- 건설공제조합이 지난해 올린 당기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930여억원을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 이로써 공제조합은 9년 연속 조합원들에 현금배당을 하게 됨.
- 공제조합은 2021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638억원 중 57%인 934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배당하고 나머지 43%는 704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18일 발표. 앞서 공제조합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30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의결하고 오는 4월 개최될 총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기로 함.
- 이번 현금배당금은 출자증권 1좌당 2만2000원(배당률 5.87%). 조합원 현금 배당금을 제외한 704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예정. (머니S, 3. 18.(금))

■ “건전한 업계 풍토 조성”, 전기공사협회 올해 첫 윤리위

- 전기공사협회가 올해 첫 윤리위원회를 개최. 부분 준공된 오송 신사옥에서 처음으로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 한국전기공사협회 윤리위원회는 21일 충북 오송에 있는 협회 신사옥 대강당에서 2022년도 제1차 전국 시·도부회장(중앙회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
- 협회 윤리위원회는 협회 전국 21개 시·도회 부회장들로 구성된 최고 윤리기구로서 주요 윤리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전기공사업계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는 역할을 수행. 이날 회의에는 협회 경기도 중부회 부회장인 임왕식 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도회 부회장직에 있는 16명의 위원이 참석.



-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윤리사업 추진계획 수립의 건'이 의안으로 부의됨.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의 시공을 방지하고 전기공사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건전한 업계 풍토를 조성하는 게 사업의 주요 목적.
- 이를 위해 각 시·도회는 윤리활동 중점 추진기간에 라디오와 전광판 광고 등 다각적인 창구를 통해 윤리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 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의 무등록 시공업체 검색과 활동을 차단하기로 함. 또한 관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계도 활동을 통해 무등록자의 시공을 방지할 계획. (전기신문 3. 22.(화))

▣ "전기요금 못 올리면 16조 추가 손실", 한전 '초비상'

- 전기요금이 제때 인상되지 않으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이 올해 16조원에 이를 것이란 한전 내부 자료가 나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발전연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올들어 급격히 올랐기 때문.
- 한전은 kWh당 최소 30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올 2분기 최대 3원까지만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음. 연료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kWh당 27원씩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작년(53만3431GWh)과 같다고 가정하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추가 손실은 올해 약 14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



- 한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전기요금이 동결되면 한전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됨. 한전은 내부 자료를 통해 "재무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및 자금 조달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미래 세대로 전가되며, 요금 조정 지연 시 인상 요인이 점증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료비 연동제가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경제, 3. 22.(화))

금 용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2. 3. 2. ~ 2022. 3. 28.

구 분	변 동 폭	3. 2 기준가	3. 28 기준가
KOSPI	▲ 26.04	2703.52	2729.56
KOSDAQ	▲ 31.66	895.45	927.11
S&P500	▲ 188.98	4,386.54	4575.52
CD(91일, %)	▲ 0.01	1.50	1.51
국고채(3년,%)	▲ 0.560	2.187	2.747
회사채(3년, AA-, %)	▲ 0.581	2.813	3.394
국고채(10년, %)	▲ 0.418	2.613	3.031
미국고채(10년, %)	▲ 0.569	1.878	2.447

□ 증시

- [국내]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와 우크라이나 - 러시아 협상 기대로 하락에 대한 일부 되돌림 시현.
- [미국] 기준금리 50bp 빅스텝 및 QT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강한 고용지표로 인한 경기 자신감으로 기술적 반등.

□ 금리

- [국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추경 등 재정정책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채권투자자들의 로스컷 물량 출회로 오버슈팅 중.
- [미국] 22년 5월 기준금리 50bp 인상이 유력하고, 연 7차례의 인상이 예상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추세에 있음.

■ 3월 연준 FOMC : 정상화 시작

- 3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bp 인상. 9명의 투표권자 중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50b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
- 점도표는 전반적으로 큰 폭 상향. 2022년말 기준금리는 0.9%에서 1.9%로,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1.6%, 2.1%에서 2.8%로 상향. 다만 장기중립금리는 2.5%에서 2.4%로 하향 함.
- 연준은 경제전망에서 2022년 PCE 물가 전망도 2.6%에서 4.3%로 큰 폭 상향. 핵심 PCE도 2.7%에서 4.1%로 상향 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확대 됨.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1분기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언함.
- 2022년 성장률은 4.0%에서 2.8%로 하향.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은 기존의 2.2%, 2.0%를 유지. 실업률 전망치도 3.5%를 유지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 확인. 파월 의장은 고용수요는 매우 강하며, 코로나가 약해질 경우 더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
- 대차대조표 축소(QT)는 성명서에서 다음 회의(5월)에 시작한다고 언급. 파월의장은 QT는 금리인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방식은 금융위기 이후와 동일하게 만기 도래분의 재투자 중단이라고 발언. 다만 속도는 과거보다 빠를 것으로 시사.
(KB증권 3. 17.(목))

■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지명자 지명

-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가 24일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함. 이어 “이처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임.
- IMF는 “그는 2014년 IMF에 합류한 이래 뛰어난 리더로 활약하였으며, 아태국을 이끌었던 지난 8년간 아시아 회원국과 IMF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서 “아시아 경제와 정치에 대한 그의 방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는 회원국들과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함. 아울러 “그의 큰 장점은 문제의 양면을 보는 데 있다. 동시에 그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면서 IMF와 지역 정책 입안자들에게 커다란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고 밝힘.

(서울신문 3. 24.(목))